

# 굿바이 호날두·네이마르·케인 ... '눈물의 월드컵'



포르투갈 호날두



브라질 네이마르



잉글랜드 케인

2022카타르 월드컵에서 호날두(포르투갈), 케인(영국), 네이마르(브라질)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8강전에서 팀이 탈락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무소속)가 끝내 월드컵 트로피를 품에 안지 못했다.

포르투갈 대표팀이 11일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에 0-1로 패하자 호날두는 눈물을 보였다.

그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먼저 라커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울었다.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릴 땐 41세가 되는 호날두에게 카타르 대회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호날두는 지난달 가나와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어 유일하게 월드컵 5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됐다.

2006년 독일 대회부터 5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해 매 대회 득점에 성공하며 이 부문에서 신기록을 썼다.

이미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최다 골 기록을 보유 중인 그는 이 숫자를 118골로 늘렸다.

눈물로 끝난 호날두 '라스트 댄스' ... 교체 멤버 출전 빛바랜 5개 대회 연속 득점 네이마르 좌절 ... 77번째 득점했지만 "우승 트로피 가져오라" 펠레의 부탁 못 이뤄 PK 허공에 차고 돌아선 케인 ... 잉글랜드 월드컵 꿈도 우승과의 인연도 날려버려

모로코전에서도 후반 6분 교체 투입된 호날두는 이날로 자신의 196번째 대표팀 경기에 나서 바테르 알무타와(쿠웨이트)와 함께 남자 축구선수 A매치 통산 최다 출전 기록 공동 1위가 됐다.

네이마르도 크로아티아전에서 각종 기록을 세웠지만, 승부차기에서 팀이 패하는 바람에 눈물과 좌절 속에 대회를 마쳤다.

그는 프랑스와 8강전 연장 전반 16분에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 득점은 네이마르의 A매치 통산 77번째 골로, 펠레가 보유한 브라질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나뉠 땐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펠레는 1957년부터 1971년 사이에 브라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77골을 쐈었고, 네이마르는 2010년에 A매치 1호 골을 넣은 이후 12년 만에 펠레의 기록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연장 후반 12분 브루노 페트코비치(디나모 자그레브)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 도전이 무산됐다.

탈락이 확정되자 네이마르도 경기장 바닥에 얼굴을 묻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라' 고 했던 투병 중인 펠레의 부탁도 들어주지 못하게 됐다.

잉글랜드의 간판 공격수이자 손흥민(30)의 절친한 소속팀 동료인 해리 케인(29·토트넘)이 '축구 중개' 역사상 A매치 최고 득점자로 이름을 올리고도 결정적인 페널티킥 실수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쓸쓸하게 마쳤다.

케인은 1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 선발 출전해 후반 9분 1-1 균형을 맞추는 동점 골을 터뜨렸다.

전반 17분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케인이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었다.

이 골로 케인은 자신의 A매치 53번째 골을 기록, 은퇴한 웨인 루니와 함께 잉글랜드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가 됐다.

아울러 축구 통계 전문 업체에 따르면 케인은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으로 4번째 골을 넣어 이 부문 역대 최다 기록도 세웠다.

이후 프랑스가 올리비에 지루(AC 밀란)의 득점포로 다시 앞서 나간 후반 36분 메이슨 마운트(첼시)가 테오 에르난데스(AC 밀란)에게 당한 파울로 다시 페널티킥이 선언돼 케인은 루니를 앞지를 절호의 기회까지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잉글랜드는 결국 1-2로 저 탈락했다.

케인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세 차례 득점왕에 오르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6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대표팀에서도 소속팀에서도 우승과는 영 인연이 없었다.

/연합뉴스

## 모로코, 아프리카 첫 4강 '돌풍'

8강전 포르투갈에 1-0 승리 유럽 강호들 넘어서며 새 역사 잉글랜드, 프랑스에 저 탈락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아프리카의 돌풍'을 일으키며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에 안착했다.

모로코는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유시프 누사이리(세비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포르투갈에 1-0으로 이겼다.

1970년 멕시코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6번째 월드컵에 나선 모로코가 4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프리카 팀이 4강에 진출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모로코는 조별리그에서 벨기에를 꺾고 16강에선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누른 데 이어 포르투갈까지 유럽 강호들을 차례로 넘어서며 새 역사를 썼다.

이번을 이어간 모로코는 프랑스와 15일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준결승전을 치른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포르투갈은 16년 만의 4강 진출을 이루지 못한 채 대회를 마치게 됐다.

포르투갈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소속)를 두 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채 스위스와 16강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신성 곤살루 하무스(벤피카)를 선봉에 세웠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반 볼 점유율에서는 포르투갈이 62%-27%(경합 11%)로 앞섰지만, 모로코의 총출발 두 줄 수비를 뚫는 데 애를 먹었다.

오허려 누사이리 등을 필두로 한 모로코가 전반 슈팅 개수에 선 7(유효 슈트 2)-5(유효 슈트 1)로 우위를 점하며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기회가 보일 때마다 포르투갈의 골문을 겨냥한 모로코는 전반 42분 누사이리가 문전에서 헤더골을 성공시켰다. 포르투갈은 후반 공격에 '울인'하고서도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프랑스도 난적 잉글랜드를 따돌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 2회 연속 우승을 향해 또 한 발 전진했다.

프랑스는 1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는 2회 연속이자 통산 7번째 월드컵 4강에 진입했다.

반면 자국에서 개최된 1966년 이후 월드컵 우승이 없는 잉글



카타르 도하의 알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8강 모로코 대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뒤 모로코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모로코는 이날 포르투갈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아프리카국가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랜드의 정상 도전은 이번에도 일찍 막을 내렸다.

프랑스가 전반 17분 오텔리앵 추아메니가 낮게 때린 벱락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트 이 골대 왼쪽 구석을 꿰뚫으며 리드를 잡았다.

잉글랜드는 후반전 시작 9분 만에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선제골의 주인공 추아메니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부카요 사카를 걸어 넘어뜨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케인이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었다.

이 골로 케인은 자신의 A매치 53번째 골을 기록, 웨인 루니와 함께 잉글랜드 역대 최다 득점 공동 1위가 됐다.

프랑스는 후반 33분 코너킥 후속 상황에서 그리에즈만이 울린 왼쪽 측면 크로스를 지루가 머리로 받아 넣어 대회 4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지루는 자신이 보유한 프랑스 선수 역대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53골로 늘렸다.

잉글랜드는 후반 36분 마운트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상대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밀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이 선언돼 결정적 기회를 잡았다.

이번에도 키커로 나선 케인이 무난히 루니를 뛰어넘는가 했으나 공을 허공에 날리는 실책이 나오며 잉글랜드가 천금 같은 재동점골 기회를 놓쳤다.

/연합뉴스



## 메시는 웃었다

아르헨, 네덜란드 꺾고 준결승 진출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의 아르헨티나가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를 승부차기에서 4-3으로 격파하며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갔다.

이날 메시는 1골 1도움을 터뜨리는 맹활약으로 아르헨티나의 4강 진출에 앞장섰다.

그는 전반 35분 절묘한 패스 한방으로 두꺼운 네덜란드 수비를 허물며 나우엘 몰리나(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제골을 도왔고, 후반 28분에는 마르코스 아쿠냐(세비아)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마무리하며 골맛도 봤다.

메시가 이날 마냥 웃었던 건 아니다.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후반 38분부터 두 골을 집어넣은 네덜란드가 경기를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면서 메시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5번째 키커로 나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터 밀란)의 슈팅이 골망을 흔들며 4강 진출이 확정되자 함박웃음을 짓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메시는 마지막 대회라고 밝혔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각종 기록도 착실히 경신하며 경연사를 누렸다. 축구 기록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첫 번째 도움으로 월드컵 결선 토너먼트에서 5개 어시스트를 배달한 메시는 '축구 황제' 펠레(브라질·4회)를 넘어 집계가 시작된 1966년 이후 이 부문 1위로 올라섰다.

이 경기로 본선 24경기째 출전한 메시는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24경기)와 역대 월드컵 최다 출전 공동 2위가 됐다.

/연합뉴스